

4

# 베를린 대학과 호모 아카데미쿠스(하)

이 광 주  
인재대 사학과 교수



## 1. 학사원 회원 보나르의 독백

19세기 중엽 파리 대학의 한 고고학 교수에게는, 학생들이나 동료 교수들은 물론 대학 주변 라틴구 일반 주민들에게까지도 널리 알려진,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버릇이 있었다.

고고학은 지체 높은 가문 출신의 이 노교수의 일생의 정열을 바친 학문이요, 그 삶의 전부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그의 강의를 듣는 학생은 겨우 2~3명에 지나지 않았

### 지성사상의 대학과 교수상

1. 중세의 방랑교사와 그 후예들
2. 교양과 교양인의 세기속의 대학과 아카데미(상, 하)
3. 이데올로기 시대와 학문의 자유
4. 베를린 대학과 호모 아카데미쿠스(상, 하)
5. 다원적 대학과 교수의 천의 얼굴

다. 그리하여 온축을 기울인 그의 강의실은 가없게도 언제나 썰렁한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강의에 귀기울이는 학

생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날은 그래도 좋은 편이었다. 두툼한 자료를 옆구리에 끼고 강의실로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이 노교수를 가로 막으며 “오늘은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연구실 조교가 알려 주더라도 그는 못들은 채 걸음을 재촉한다. 얼마 뒤 그의 강의실에서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은 낭랑한 음성이 복도에까지 들려 온다. 그사이 출석 학생이 나타난 것이었을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 노교수는 자신을 대학에까지 모셔 온 그의 충직한 마부들, 학생이 없을

때의 여느때처럼 강의실에 불러 들여 그를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1일학생(?)의 덕택으로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하루도 결장하는 일이 없이 교수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호모 아카데미쿠스 즉, 학자적 인간의 본질을 우리들은 “나는 연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명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거니와 ‘연구’는 또한 로고스 즉, 말과 깊이 관련된다. 호모 아카데미쿠스는 ‘말의 인간’인 것이다. 고고학 교수에 있어 말을 함은 즉, 강의를 함은 그의 삶의 본질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던가.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삶의 진면모는 많은 경우 그와 그의 서적의 관계에서 엿볼 수 있다.

유럽 중세의 독서인-수도사들에게 독서는 바로 순례를 의미하고, 서적은 감미롭고 성스럽기까지 한 포도를 따내고 거둬 들이는 포도밭을 의미하였다. 근대적인 호모 아카데미쿠스에게도 그것은 옛 수도승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19세기 프랑스의 작가 아나톨 프랑스의 《학사원 회원 실베스트르·보나르의 죄》(1881)라는 작품이 있다.

그 주인공은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가까이 바라보이는 세느 강변 ‘서적의 도움’(서재)에서 고독한 나날을 보내는 문헌학자이다. 우리들의 주인공 보날은 그 자신의 서재의 장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자랑한다.

“선반 위에는 대은행가가 왕후와 서로 다투어 값을 올릴 만큼의, 16세기 시인의 시집이 몇 권인가 없혀 있다. … 나는 서적의 도움에 사는 이들 희귀본을 특히 한 덩어리로 묶어 비장하여 옛부터 그것들이 공기나 햇빛처럼 나의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믿어 왔다. 나는 그 서적들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였다. 지금도 그것들에 미소를 보내며 쓰다듬어줄 정도이다. 저 모로코 가죽의 보기만하여도 상쾌한 모양,

저 송아지가죽(犢皮紙)의 손에 닿는 감촉의 부드러움, 이들 서적 중 무엇인가 특별한 값어치에 의해 선비·군자의 경우에 알맞지 않은 서적은 한 권도 없다. 나밖에 어느 누가 이것들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인가…”

남달리 서적을 아끼고 사랑하며 또 그만큼 서적에 욕심많은 문자 그대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탐내는 사람을 표현하여 書癡·書淫·書癡라고 말한다.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위인 보날은 자기를 서적에 파묻혀 은둔의 나날을 보내는 나이 많은 독신자로서 스스로를 소개한다. 그런 그가 중세의 귀중본인 성인전 《黃金傳》을 찾아 먼 낫선 이국 땅 시실리 섬에 노구를 무릅쓰고 갔다 하여 이상할 일은 물론 아니다. 그 길은 험된 길이었고 그 고문서를 그는 결국 파리의 고서점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때의 감동을 보날은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청년 시절의 수개월, 가령 내가 백 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이 추억은 임종의 그 순간까지, 이 서적을 목전에 한 첫날 그때와 다름없이 선명하게 남을 이 수개월을 제외하고 나의 생애 것처럼 감동을 느낀 적은 없다.”

그러나 書癡와도 같은 이 노학구는 시실리 섬에서 만난 귀부인을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을 나무란다. “그대는 古文을 판독하는 법은 알고 있으나 인생의 책을 읽는 법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그는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제 자리에 돌아간다. “아름다운 밤!…… 나는 60년 이상의 습성에 의해 사물을, 그것을 표현하는 부첩(簿牒)에 의하지 않고서는 느끼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과연 밤의 靈氣는 몸에 배어든다. 나에게 있어 이 세계에는 말 이외에 아무 것도 없을 만큼 나는 어학에 굳어졌다. 인간은 저마다 멋대로 인생의 꿈을 꾸는 법이다. 나는 서재 속에서 인생의 꿈을 꾸어 왔다. 바로 이 세상을 하직할 때가 도래한다면 바라건대 서적을

나란히 한 책장 앞 사다리 위에서 죽게 하여 주소서.”

서적! 서적이란 호모 아카데미쿠스에게 무엇인가. 서적이 출현한 이후 가장 자명하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투명하다고만 할 수 없었던 불가사의한 서적과 독서인 호모 아카데미쿠스와 의 관계, 그러한 관계는 우리들의 주인공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보날은 어느 날 일기에 다음과 같이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한 승려의 펜에 의한 몇 페이지, 페터 셰퍼(구텐베르크의 인쇄소의 공동 출자자)의 무명의 도제가 찍어낸 몇 페이지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이 며칠 있었다. 만약 이 아름다운 열정이 나로부터 소멸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점차 소멸됨을 말한다. 우리들의 정열은 우리들 자신이다. 나의 서적은 나 자신이다. 나는 古本처럼 늙고 시들었다.”

이 밤의 독백 속에는 서적의 보람과 회한이 표출되고 있다. 그리고 그 회한은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파우스트적인 운명이기도 한 것이다.

양녀 잔느가 연인을 기다리며 서재의 청자 꽃병에 꽂아 놓은 장미, 그 생생한 ‘삶’을 바라보는 노학자의 가슴은 또 한번 고동친다.

“또 여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별로 의미도 없는 낡은 양피지에 눈만 못쓰게 할 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전에는 그 고문서들을 숭고한 열의를 쏟아 판독하였다. 그런데 그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발견하고자 하였을까. 蠹의 처마 건립의 연대, 寫工이나 寫字僧의 이름, 빵이나 소·밭의 값, 행정·사법상의 처리 등, 그리고 그밖에 또 하나 무엇이, 나의 열정을 북돋운 신비스럽고 표묘한 숭고한 무엇이, 그런데 나는 그 무엇인가를 60년간 찾았으나 결국 얻을 수 없었다. 나 이상으로 뛰어난 사람들, 역사가 포르엘나 체리와 같은 앞선 대가들도 수많은 발견을 하면서도 그 무엇인가를 발견 못하고 학업 중도에 쓰러졌다. 실체가 없는 까닭에 이름도 없는 그

무엇을, 그리고 그것 없이는 어떠한 정신적인 노작도 이 지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잔느! 이까짓 책들에는 이제 신물이 난다. 모두 팔아버리자.”

학사원 회원 보날의 ‘죄’는 무엇일까. 그가 ‘삶’과 명백히 구분된 서재의 인간이었다는 점에 있을까. 아니면 호모 아카데미쿠스이면서 끝내 ‘삶’을 엿본 점에 있을까.

## 2. 근대적 독서의 기법

서적과 독자층의 사회사에 관해 연이어 흥미로운 글을 발표하고 있는 사회사가인 로버트 단턴은 18세기의 독자에 관한 글에서, 그들은 서적을 마치 포도주를 음미하듯이 맛보았다고 하였거니와, 아직도 서적이 값 비싸고 일부 여유있는 계층들만이 가까이할 수 있었던 시대에 독서는 분명히 향기 드높은 고급 포도주를 마시듯 사치스러운 행위를, ‘놀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리하여 서적과 관련된, 그리고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본질과도 관련되어 일컬어지는 서벽·서음·서치 등 지극한 유희적 인간이 또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적의 보급과 독서 인구의 증가는 독서로부터 사치를, 놀이의 특성을 점차 빼앗으니 그것은 또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존재 양식에도 큰 변모를 초래하였다.

루이 14세의 치하(1638~1715)에서 귀족이나 부유한 시민 그리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00% 가까이 문자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아내들도 결혼 계약에 모두가 서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상인이나 동업조합(길드)의 우두머리들은 75%~80% 정도가 서명할 수 있었으나, 장인이나 임금노동자, 하인들에 이르면 그 숫자는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었다. 한편

도시 변두리에 사는 농촌 출신자의 識字率은 10% 이하를 나타낸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책을 읽을 수 있었다든가 혹은 서적을 가까이할 수 있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유럽에서도 가장 일찍이 초·중등 교육이 발달하였다고 하는 독일 프로이센 왕국의 초등교육의 보급률은 1822년 당시 전 인구의 12%에 지나지 않았으며, 프랑스가 10%를 넘게 되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뒤늦은 1865년 이후에 이르러서였다. 한편 중등교육으로 말하면 그 무렵 프로이센이나 프랑스 모두 0.2%~0.4%라는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 데 불과하다.

그러나 말과 펜의 시대요 지식의 시대인 18세기에 이르면 독서는 극소수 학식자의 특권적 문화 행위로부터 폭넓은 독자층에 개방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지난날 성서와 교양문답서만을 가까이한 독자층이 볼테르나 루소 그리고 백과전서파의 서적을 읽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독서 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루소의 『신에로이즈』의 여주인공인 귀족의 딸에게 그의 가정교사는 다음과 같이 독서의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읽는 책을 적게 하고 읽은 것을 충분히 고찰할 것, 그리고 같은 이야기가 되지만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것, 이것이 잘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책을 읽으면 거기에 쓰여진 이상의 것이 보태어지고, 능동적인 정신이 책 위에 또 한편의 책을 만들어 내고 때로는 원래의 책보다도 그 편이 더 훌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생각한 것들을 서로 전하도록 합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것들을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당신은 그 같은 테마에 관해 생각한 것을 나에게 이야기 합시다……”

루소와 동시대의 어느 저술가는 루소의 독서관과 관련하여 진정한 독서의 기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읽는 모든 것들

을 자기 자신의 ‘자아’와 결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에 의해 우리들은 보다 자유롭고 자립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우리들의 정신이나 심정도 자유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게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아를 찾는 독서의 새 방법론은 독서인=호모 아카데미쿠스의 새로운 존재 양식의 창출과도 깊이 관련되거니와 이제 우리들은 그 형성의 과정을 영국의 19세기에서 찾아 보자.

### 3. 전문학과 전문가 시대의 ‘교양 있는 지성’

영국의 경제학자인 J. A. 홉슨은 1893년 옥스-브리지 풍의 영국 아카데미즘을 비판한 글에서, “오늘날의 대학인은 지나치게 ‘전문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 대학인이 어찌다가 노동조합 같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관심은 ‘순수 知的’일 뿐이다.”라고 쓰고 있다. 홉슨에 의하면 서재 속에서 서적에 둘러 싸여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교양을 깊게 하는” 것에는 열정적이지만 사회적 진보 따위에는 별로 관심을 지니지 않는다.

이 『제국주의』(1902)의 저자에 의한 아카데미즘과 대학인에 대한 비판은, 프랑스·독일·미국에서와 같이 때마침 영국에서도 대량으로 출현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자’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었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와는 다른 거대 도시 런던이나 지방 공업도시를 배경으로 연이어 출현한 대학과 그 연구소에 진출 친 일군의 ‘연구자’들의 특성으로서 당시 지적된 것은 ‘연구의 직업화’와 그리고 그들의 지식의 전문화였다. 그러나 홉슨이 가장 비판한 점은 그들 아카데미커들의 ‘학술 정신’이었다. 그리고 이 학술정신의 표현을 통해 그가 특히 강조하고자 한 것은 아카데미커가 연구를 그 자신의 ‘내면

적 교양'을 위해 행한다는 '교양' 지향주의 바로 그것이었다.

교양 지향의 연구자의 태동은 영국에서 폭넓은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고전 고대의 그리스·로마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 문화란 '교양'의 문화이다. 그리고 이 교양의 유럽적인 전통은 영국에서는 옥스-브리지의 학풍과 맞물려 대학인 즉,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세계에서도 귀족과 젠트리에서와 같이 맥맥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빛은 직업적인 특수 '연구자'들의 시대에도 꺼지는 일이 없었다. 그들 중에도 옥스-브리지 출신이 많았던 것이다.

근대 영국의 교양지상주의 교육이념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J.H. 뉴만의 『대학의 이념』(1852~58)에 의하면 젠틀맨에게는 '교양있는 지성'이 품위있는 취미, 공정한 정신 그리고 예절이라는 덕성과 더불어 요구되거나 이때 '교양있는 지성'은 지식을 공리성이나 유용성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Knowledge its own end), 다시 말하여 '지식을 위한 지식'으로서 배워야 한다. 젠틀맨에게 요구된 이 '지식을 위한 지식'은 영국에서는 독일에서와는 다른 의미에서 '연구자' 즉, 호모 아카데미쿠스에 의해 받아 들여졌다. 영국풍의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전형은 옥스-브리지의 교수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직업적인 전문가가 판을 치는 근·현대에서 '교양있는 지성', '지식을 위한 지식'을 특성으로 하는 영국풍의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창출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 물음에 대해 시인이자 문학 비평가요 그리고 계관시인으로서 옥스포드 대학의 시학 교수(1857~67)의 경력을 지닌 M. 아놀드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교양있는 지성'의 출발점은 순수 지적인 '호기심'이다. '이해를 초월하여 정신의 자유로운 놀이(free play)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창출자의 밑바닥에 있어야 한다. 이 순수한 지적 호기심, '순수한

지식을 찾는 과학적 정열'을 아놀드는 '교양'(culture)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이끄는 것은 아놀드가 '교양'의 첫번째 근거로서 '순수한 지식을 찾는 과학적인 정열'을 들고, 이어 제2의 근거로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도덕적·사회적 정열'을 지적한 점이다. 말하자면 아놀드는 교양의 제1의 전제로서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순수인식을, 그리고 제2의 전제로서는 교양의 사회성, 바꾸어 말하면 그 공리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아놀드에게 '교양' 개념의 이러한 변질은 어떻게 일어났던 것일까.

19세기 후반기 영국은 제2의 산업혁명을 맞아 자본주의의 발전 속에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날로 첨예화 되어 갔다. 그리하여 학식-지식사회도 큰 동요를 드러내었다. 아놀드의 『교양과 무질서』(1869)는 말하자면 영국적 교양과 그것을 정신적인 지주로서 영국 사회를 다스려온 귀족과 젠트리 그리고 '교양적 지성'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교양주의자 아놀드의 위기의식과 경고의 함였던 것이다.

전환의 시대, 동요와 불안의 시대는 지적 활동이 다양한, 특히 비판적인 지성의 시대이다. 당시 옥스-브리지의 교양적 지성 내지 호모 아카데미쿠스와는 이질적인, 저널리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저술가 집단이 런던을 중심으로 체제 비판적인 논진을 활발히 펴고 있었다. 그들을 아놀드는 '교양의 적'으로 공격하였으며 그들 또한 '교양'의 사회적 무관심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지식사회의 이러한 분열과 갈등 속에서 아놀드는 교양의 전통에 새로운 의미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도덕적·사회적 정열'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이제 아놀드는 '교양인'을 모든 계층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는 '지적 대중'으로서의 중산층을, 젠틀맨을 지향하는 중산계급을 염두에 두었던 것일까.

한편 아놀드의 새로운 '교양인'상의 또 하나의 이미지로서 떠오르는 모습은 대학에서의

‘연구자’ 즉, 아카데미커이다.

옥스퍼드 대학 링컨 컬리지의 학장을 지낸 M. 파티슨은 1868년에 발표한 『대학 조직에 관한 제안』에서 독일의 대학을 모델로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영국에서는 민간에서 고립되어 존재한 전문 과학자들을 컬리지 단위로 ‘조직화’ 할 것을, 그리고 컬리지 교수 채용시 연구업적 중심주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그의 제안은 자유학예 중심의 전통적인 컬리지 교육을 전문학 중심의 연구와 교육의 대학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파티슨의 입장은 또 그의 새로운 ‘교양’관과도 깊이 관련된다. 이 옥스퍼드맨도 물론 교양주의자였다. 그러나 파티슨은 지난날의 ‘교양을 위한 교양’이 바야흐로 도래한 지적인 중산계급의 시대에서 더 이상 바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차선의 길로서 ‘과학의 교양화와 아카데미칸 교육에 전념하는 학식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컬리지마다 조직화할 것을 제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기대한 ‘연구자’란 우선 무엇보다도 ‘교양인’으로서의 연구자였다. 이러한 교양적 연구자를 강조함으로써, 독일 아카데미즘에 그리고 독일 베를린 대학의 학문 수준에 컴플렉스를 느끼며 초조해 하였던 런던과 지방 공업도시의 신설 대학들의 ‘끝없는 전문주의’ 지향을 파티슨은 또한 경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전문학과 전문가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나타난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변모는 또한 역사적 필연이었다고 할 것이다.

#### 4. 실천 이성—인식하는 자의 자유

독일 대학에 유학한 경력이 있는 미국의 심리학자 S. 홀은 그의 회상록에서 독일의 철학 교수들이 마치 ‘신의 대리인’처럼 행동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마치 신을 증명하는 영예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오래 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사람의 모든 저작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발견만을 강의한다고 공연하는 자도 있었다.”

클라크 대학의 총장을 지낸 홀은 이상과 같이 독일적 학풍을 비판하면서도 독일풍을 따르는 학문지상주의를 표명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홀은 학생과 교수의 연구를 복돋우며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연구란 인간에게 최고의 사명이다. 그것은 종교와 전혀 다름이 없다. 오늘날 여기서 우리들의 지식을 확대하는 데 성공하면 그것은 내일의 인류 전체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해방함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홀의 언명에는 독일 학풍의 수용과 더불어 학문의 사회성·공리성이라는 미국적 지성의 실용주의적 전통이 또한 표현되고 있다.

학문과 교육이 진리의 탐구 내지 인간적인 선의 구현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한다고는 하나, 그 실현의 과제와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적 전통과 사회상황에 따라 다양한 위상을 드러냄은 또한 필연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베를린 대학의 철학 중심의 학풍이 독일의 교수상에서 특징지어지는 지극히 관념적인 호모 아카데미쿠스를, 그리고 영국의 전문적 연구자 즉, 그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특징을 옥스-브리지의 학풍과 혈연 관계를 질게 하는 ‘교양적 지성’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본질과 그 존재 양식을 “나는 연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명제 속에 찾는다고 하지만 학풍이 시대와 국가·사회에 따라 다르듯이 호모 아카데미쿠스 또한 갖가지 얼굴을 지니게 마련임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근·현대 이데올로기시대에서 그의

진실된 위상을 우리들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일까.

권력을 본질로 하면서 마키아벨리즘적인 국가이성을 지향하는 근대 국가의 성립 그리고 그와 무관하지 않은 종파의 시대, 이데올로기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학문의 자유'의 문제는 학문에 종사하는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가 되었다.

'학문의 자유'의 이념은 베를린 대학의 지도 이념으로서 뿌리를 내리거니와 이 때 그것은 특히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학문 연구와 그에 종사하는 대학인 및 그 공동체인 대학의 자주성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데올로기 시대에 호모 아카데미쿠스에게 요구되는 '자유'의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보자.\*

막스 베버는 '학문의 자유'의 이념을 받들어 '전제 없는 학문' 즉, 학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제 없는' 자유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베버의 '무전제'에는 하나의 전제가 불가결한 것으로 전제되었다. 그것은 바로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금욕'이다. 베버에 의하면 교단에 선 학문하는 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교사는 자기의 주관적인 평가나 세계관을 교단에서 강조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교단 위에서 듣는 사람을 향해 무엇인가 어떤 입장을—명백하건 묵시적이건—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사는 어떠한 이념이나 주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이 고명한 사회학자는 『직업으로서의 학문』(1919)과 그밖의 여러 저술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베버의 주장은 '가치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었거니와 베버가 바라는 대로 과연 호모 아카데미쿠스는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호모 아카데미쿠스는 인식의 객관성—보편성

을 지향한다. 그러나 주관과 연관되지 않는 객관성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일까.

베버도 단지 사실에만 관련되는 '객관성'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것처럼 '객관성', '가치의 자유', '무전제의 학문'을 다시 말하여 '知的 廉直'을 강력히 요청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직업으로서의 학문』이 발표되었을 당시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의 대학과 지식사회에서는 소비니즘적 민족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바야흐로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베버는 민족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유행이 필경 대학과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세계에 이데올로기의 선동자를 불러들여 오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예언자나 선동자는 대학의 교단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베버는 경고하거니와 이러한 경고는 이데올로기 시대의 인식의 인간인 호모 아카데미쿠스에게도 당연히 해당된다.

스위스의 문화사가 부르크하르트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세계의 역사를 둘로, 그것이 간행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놓았다고 하였거니와 『사회계약론』에서 주장된 '인민주권'의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 갈등의 시대를 출현시켰으니 특히 문자 언어를 조석으로 대하는 지식인—호모 아카데미쿠스는 그가 원하던 원치 않은 이데올로기의 광장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지난날 '말'과 '이야기'가 지배한 시대는 단일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 그리하여 그 시대에는 우리의 유학적 전통 사회나 그리스도교적 유럽 중세에서 볼 수 있듯이 학식자 즉, 호모 아카데미쿠스는 문자 언어를 해독하면 족하였다. 그 때 서적과 텍스트를 마주함은 그 자체 선비—군자의 길ियो, 순례의 길이었던 것이

▪ 이하의 언급은 이미 발표된 줄고 "이데올로기 시대와 학문의 자유" (본지 제72호(94/11·12) 게재)와 많은 부분이 중복됨을 밝힌다.

다.

그러나 '인민주권'의 이념은 '논의하는 공중'(하버마스)의 태동을 낳았으며 이제 호모 아카데미쿠스도 더 이상 상아탑의 주인임을 포기하여야 하였다.

'문체는 인간이다.'라고 하지만 서적과 그에 관한 '독해'는 그 이상으로 사회성을 지닌다. 이제 이데올로기시대에서 세계는 '텍스트'로서 간주되었다. 말하자면 문자를 쓰는 사람에게 세계는 객관적인 실재가 아니라, 역사가에게 역사가 언제나 새로이 쓰여져야 하듯이, 새로이 인식되고 쓰여질 현실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리다는 "쓰는 것의 기쁨에 찬 방향"을 말한 바 있거니와 데리다에 있어서와도 같이 호모 아카데미쿠스 즉, 진정한 인식의 인간에게 '쓴다'는 행위는 '텍스트를 짜내는 힘'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호모 아카데미쿠스는 그가 진정 지성적 인간이라면 즉, 단순한 학식자이거나 직업적인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가 놓인 체제와 애매한 기

계적 의존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체제 비판적인 실천 이성을 지녀야 한다. 이 실천 이성을 통해 호모 아카데미쿠스는, 자기 자신을 단순한 학식있는 전문가가 아닌, 그리고 그 자신의 '특수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을 검증하는 진정한 인식의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호모 아카데미쿠스는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끝 없는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현실에서 단순한 방관자도 단순한 배우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는 학문한다는 그의 본질로 하여 언제나 자유로운 중간자적인 '염직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

---

이광주/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연구하였으며 충남대와 전주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지식인과 권력』, 『유럽사회 풍속산책』 등이 있다.